

현실 다루기 작은 지구를 위한 마음

바이오필리아

| 데이비드 W. 오어 | 이한음 옮김 |

생명사상의 경외와 진리추구, 기쁨은 기술근본주의와 도구적 합리성에 매몰된
마음에서 벗어날 때 다가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우리는 강도가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주위 환경과 관계를 맺으며, 이 유대의 원천은 다양하다.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익숙해진 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자유보다 감옥을 더 좋아하는 죄수도 있다. 우디 앨런처럼 시골 경관이나 야생을 기피하는 도시 주민도 있다. 도시에 발을 들이지 않으려는 시골 사람도 있다. 단순히 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자신이 잘 아는 것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다. 지리학자 이푸 투안Yi-Fu Tuan은 이 유대감을 “장소애호topophilia”라고 했으며, ‘인간이 물질 환경과 맺는 모든 애정 어린 결속’을 포함한다고 했다(1974, p.93). 장소애호는 특정한 장소의 생물학과 지형학에 진정으로 뿌리내린 것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의 친숙한 환경에서 형성되는 서식지 감각에 더 가깝다. 장소애호는 타고나는게 아니라 획득되는 것이다. 뉴욕 주민은 몬태나 주민보다 장소애호나 서식지 감각이 더 강한 모양이다. 하늘, 산, 송어가 사는 하천을 대할 때의 친밀함은 몬태나 주민이 더 느낄 것 같다. 하지만, 둘 다 습관적이고 친숙해지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에드워드 월슨은 애착이 서식지의 특수성을 넘어서는 더 깊은 근원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가 다른 생물과 다른 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고는 거의 볼 수 없는 생물학적 종’이라고 주장한다.(Wilson 1984, p.112). 우리는 월슨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타고난 충동이라고 부른 것, 즉 ‘바이오펠리아’를 통해 생물들과 결속된다. 바이오펠리아는 어린 시절에 일찍 시작하며 문화적·사회적 패턴으로 ‘단계적으로 펼쳐진다.’ 바이오펠리아는 수만 년에 걸친 진화 경험을 드러내면서 우리 뇌 자체에 새겨져 있다. 우리가 마음이 진화한 사바나 초원을 묘사한 경관을 좋아하는 것은 분명하다.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 기회가 주어질 때, 사람은 통계적으로 사바나와 비슷한 환경에 끌린

다”(Wilson 1984, p.112). ‘아름다움과 신비’가 제거된 철저히 인위적인 환경으로 옮겨가면, 마음은 ‘더 단순하고 영성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며’ 이는 온전한 정신 자체를 훼손한다(p.118). 게다가 바이오필리아는 월슨이 마찬가지로 “생물학적으로 오랜 옛날에 기원”한 듯한 “우리 종의 대담하게 파괴적인 성향”이라고 말한 것과 경쟁한다(p.12). 이런 성향이 “수백만 년에 걸쳐 뇌가 형성된 곳”인 세계를 제멋대로 파괴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위험한 단계”라고 월슨은 주장한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자각과 성숙함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본능적인 조건화와 무관하게 자연세계에 경외심을 일으킬 수도 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는 이렇게 썼다. “생명을 깊이 공부한다면 그 오묘함에 갑자기 현기증이 일 것이다”(1969, p.115). 그는 이 반응을 생명 자체의 헤아릴 길 없는 신비를 알아차리는 데서 나오는 “생명외경 reverence for life”이라고 했다(슈바이처가 쓴 독일어 단어 [Ehfrucht]는 영어 단어[reverence]보다 더 큰 경외심을 의미한다). 나는 슈바이처의 생명 외경이 레이철 카슨이 말한 “경이감the sense of wonder”와 비슷하다고 본다. 하지만 슈바이처의 생명외경은 대체로 세상에 대한 깊은 고뇌의 산물이었다. “일단 자기 삶의 수수께끼와 자신을 세상에 가득한 생명과 잇는 고리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생명 외경의 원리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Schweitzer 1972, p.231). 슈바이처는 생명 외경을 자신이 현대 세계 도처에서 본 타락에서 문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철학의 유일한 토대라고 여겼다. “우리는 세계와 생명을 긍정하는 우주론을 내놓는 일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 (p.64)

우리는 이 지적 노력이 우리가 이미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다른 생물들에게서도 뚜렷이 있는 것의 도움을 받는다고 믿을 근거가 있

다. 찰스 다윈 같은 권위자도 “모든 동물은 경이를 느낀다”고 믿었다 (Darwin 1977, p. 450). 영장류학자인 해럴드 바위Harold Bauer는 탄 자니아 곰베숲 보호구역Gomble Forest Reserve의 장엄한 폭포를 바라보며 묵상에 잠긴 침팬지를 관찰한 적이 있다. 침팬지는 마침내 “우후후”하는 팬트 pant-hoot”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나무를 두드리며 앞뒤로 마구 내달렸다.(Konner 1982, p.431). 이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것을 경외감과 황홀경의 침팬지판이라고 보아도 무리는 아니다. 제인 구달Jane Goodall을 비롯한 연구자들도 비슷한 행동을 관찰했다. 바이오필리아와 경외감의 능력이 인간의 전유물이라는 믿음을 토대로 그런 설명을 내치는 것은 가장 나쁜 유형의 인간중심주의일 것이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생물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한 예로, 조지프 우드 크루치Joseph Wood Krutch는 새를 비롯한 동물들이 “우리보다 더 중요하고 더 쉽게 기쁨을 접할 수 있는 듯하다”고 믿었다(1991 p. 227). 그리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경이감은 거의 필연적으로 쇠퇴한다”는 에이브러햄 허셜의 말에 적잖은 철학자들은 동의를 해왔다 (Heschel 1990, p. 37).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술과 더불어 타고난 자연 친화력을 계속 간직할까? 나는 그렇다고 보지만, 회의주의자를 만족시킬 증거가 전혀 없음을 안다. 우리가 그런 타고난 감각을 지닌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계에 입힌 피해로부터 바이오필리아가 어디에서든 언제나 작동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지 모른다. 에리히 프롬이 주장했듯이, 바이오필리아는 억눌리거나 타락할 수 있으며, 그러면 더 파괴적인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파괴성은 바이오필리아와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대안이다.

생명 사랑이나 죽음 사랑이냐는 모든 인간이 직면하는 근본적인 양자택일이다. 죽음애호necrophilia는 바이오필리아가 위축될 때 자라난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바이오필리아 능력을 타고났지만, 심리적으로 죽음애호를 대안으로 삼을 잠재력을 지닌다.(Fromm 1973, p.366)

또 우리는 사람들이 바이오필리아 감각을 잃을 수 있다고 믿을 근거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다윈은 자서전에서 “멋진 풍경은..... 예전과 달리 절묘한 기쁨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시인했다(Darwin 1958, p. 54). 또 사회 전체가 어떤 형태든 사랑할 능력을 잃을 수도 있다. 우간다 북부의 이크족Ik이 전래의 사냥터에서 작은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주당했을 때, 인류학자 콜린 텀블Colin Tumbull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의 세계는 “잔인하고 적대적인 것이 되었고 예전에 그들이 자신의 터전인 산에 대해 지녔을 사랑은 어떠한 것이었든 간에 잃었다”(1972, pp. 256, 259). 이크족이 예전에 느꼈을 자기 장소에 대한 사랑은 지루함과 주변 세계에 대한 “침울한 불신”으로 변형되었고 텀블이 전적으로 박정하고 냉혹하고 비열하다고 묘사한 사회관계와 잘 맞았다. 이크족 사는 생명과 서로에 대한 결속이 일부에서 상정하는 것보다 더 허약하며, 일단 깨지면 쉽게 회복하지 못하며 아마도 영구히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적나라한 경고다. 20세기 역사의 상당 부분은 바이오필리아와 기타 애호가 허약하다는 증거를 더 제시한다. 우리는 유례없는 인간의 폭력과 유례없는 자연에 대한 폭력의 시대를 살고 있다. 아우슈비츠와 대량 멸종, 핵무기, 폭발적인 경제성장의 시대 말이다.

과학이 기술의 형태로 제공한 힘은 사탄 숭배와
유사한 것, 다시 말해 사랑의 포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순수한 형태의 과학 사회는... 진리 추구, 사랑, 예술, 저절로 우러나는 기쁨,
여태껏 인간이 소중히 한 인간의 모든 이상과 양립할 수 없다.

설령 자연에 대한 인간의 친화력이나 애정이 남아 있다는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을지라도, 인간은 현재 이타주의와 무욕을 배워야 하는 역설적인 입장에 있다. 이기적인 이유와 생존을 위해서 말이다. 스티븐 제이 굴드의 말처럼, “우리는 자신과 자연 사이의 정서적 유대를 함양하지 않고서는 종과 환경을 구하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구하러 싸우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가 종과 환경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도 구할 수 없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종과 환경에 의존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바이오필리아를 배양할 ‘전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지닌다 (Wilson 1984, p. 140).

육신의 생존뿐 아니라 또 다른 위험도 있다. 생태적 위기로 내모는 파우스트적인 충동은 우리 인간성의 핵심을 이루는 마음과 정신의 품성도 훼손한다.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Bertland Russell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애호가로서 세계를 포기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영혼의 이런 분열은 인간에게서 가장 뛰어난 것에 치명적이다.... 과학이 기술의 형태로 제공한 힘은 사탄 숭배와 유사한 것, 다시 말해 사랑의 포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순수한 형태의 과학 사회는... 진리 추구, 사랑, 예술, 저절로 우러나는 기쁨, 여태껏 인간인 소중히 한 인간의 모든 이상과

양립할 수 없다. (Russell 1959, p. 264)

요컨대 생태적 위기는 그것이 인간에게 지닌 의미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자연의 다양성이 인간 지성의 원천이라면, 현대 기술과 경제에 내재한 체계적인 자연 파괴는 바로 그 정신의 원천에 맞선 전쟁이다. 우리는 인간의 지성이 생물 다양성이 없는 달 환경에서는 진화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믿을 타당한 근거가 있다. 또 삼라만상을 대할 때의 경외감이 언어의 기원 및 초기 인류가 처음에 말하고 노래하고 시를 짓고 싶어 한 이유와 관련이 깊다고 믿을 타당한 근거도 있다. 흐르는 물, 바람, 나무, 구름, 비, 안개, 산, 풍경, 동물, 계절 변화, 밤하늘, 수수께끼 같은 생명 순환 주지 등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은 생각과 언어를 낳았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겠지만, 아마 예전보다는 활기가 덜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인간의 지성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자연의 다양성을 규명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삼라만상에 대한 바이오필리아와 존중 없이 마구 자행해온 폭력에서 인간의 자아와 같은 것과 세계를 구할 수 있을까? 기술 근본주의자와 도구적 합리성의 열광자가 펼치는 온갖 논증에도,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타당한 증거가 전혀 없음을 안다. 조지프 우드 크러치의 말마따나, ‘우리는 자연 세계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는 쪽으로 나아갈 문명을 원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원래 속했던 공동체와의 융화 및 그 의존에서 멀어지고 우리를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문명을 원하는가?’(Krutch 1991, p. 165) 〈신명기〉의 저자는 옳았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지니든, 우리의 철학이 아무리 독창적이든, 우리를 끌어당기는 타고난 인력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결국 삶과 죽음, 친밀감과 고립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끝) 

- 이 글은 『작은 지구를 위한 마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래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데이비드 W. 오어** David W. Orr | 오벌린 대학의 환경학 및 정치학 교수이자, 버몬트대학교 교수로 있다. 바이오니어스상(Bioneers Award)과 린드허스트상(Lindhurst Prize)을 비롯하여 환경 분야의 상을 여러 받았으며, 로키마운틴연구소(Rocky Mountain Institute)와 알도레오폴드재단(Aldo Leopold Foundation) 등 여러 기관의 이사를 맡고 있다. 『마지막 피신처 : 애국심, 정치학, 공포 시대의 환경』(The Last Refuge : Patriotism, Politics, and the Environment in an Age of Terror, (2004)을 비롯하여 6권의 책을 저술했다.

1987년에 대학 구내에서 사용하는 에 지, 물, 물질을 연구하는 분야를 창설하여 녹색캠퍼스운동(green campus movement)을 일으켰다. 1996년에는 미국 대학에 최 로 실질적인 녹색건물을 설계하는 활동을 벌였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100일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roject)을 짜는 일을 맡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환경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역자 | **이한음** | 실험실을 배경으로 한 과학 소설 『해부의 목적』으로 1996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 전문 번역자이자 과학 전문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과학 소설집 『신이 되고 싶은 컴퓨터』 『DNA, 더블댄스에 빠지다』가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복제양 돌리』 『돌리 이후』 『핀치의 부리』 『DNA, 생명의 비밀』 『악마의 시도』 『살아 있는 지구의 역사』 등 다수이다. 『만들어진 신』으로 한국출판문화상 번역 부문을 수상했다.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작은 지구를 위한 마음

생태적 문맹에서 벗어나기



데이비드 W. 오어 지음 | 이한음 옮김 | 출판사 **현실문화** | 정가 15,000원

생태적 문맹에서 벗어나기 위한 교육

생태적으로 문맹인 현대인들을 위한 교육서 『작은 지구를 위한 마음』. 이 책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기후행동계획을 수립하며 각종 환경 분야의 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W. 오어가 집 한 것으로 1994년 초판 출간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태 교육 철학 입문서로 꾸준히 읽히고 있다. 저자는 지구는 작은 행성에 불과하며 지구에서 다른 생물과 살아가는 덕목과 가치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생태와 경제, 지역성과 세계화, 현대 문명과 교육 체계 전반에 대한 저자의 통찰력과 생태 교육과 교육 철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